

이하선암 85예에 대한 분석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, 이비인후과학교실¹⁾
 서진학* · 장한정 · 정용윤 · 최은창¹⁾ · 박정수

목적 : 이하선암의 발생빈도는 매우 낮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적은 연구대상에 대한 보고만이 있을 뿐이다. 이에 연구자들은 본원에서 경험한 이하선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임상특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199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이하선암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 받은 85예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임상자료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, 연령, 성별, 임상증상, 치료방법, 치료 효과를 분석하였다.

결 과 : 85예 중 남자가 44예, 여자가 41예 이었으며, 평균연령은 46.0세(8.0~79.0세) 이었다. 내원시 증상으로는 이하부 종괴는 83예, 종괴부위 통증은 21예, 안면신경 마비는 6예에서 호소하였고, 종괴를 발견하고 내원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4.0년(2주~30년)이었다. 이하선 전절제술은 42예(49.4%), 표재엽 절제술은 39예(45.8%), 아전절제술은 2예(2.4%), 종양 적출술은 1예(1.2%)에서 시행되었으며, 이복근하 경부림프절 청소술은 45예, 광범위 경부림프절 청소술은 13예에서 시행되었다. 종괴의 크기는 평균 3.5cm(0.5~15cm)이었다. 병리조직학소견상 mucoepidermoid carcinoma가 31예, acinic cell carcinoma가 12예,

adenoid cystic carcinoma가 12예, Basal cell carcinoma가 8예, adenocarcinoma가 7예, squamous cell carcinoma가 7예, carcinoma ex pleomorphic adenoma가 4예, un-differentiated carcinoma가 3예, adenosquamous cell carcinoma가 1예 있었다. 안면신경을 침범한 경우가 9예(10.5%), 림프절 전이는 15예(17.6%)에서 있었다. 수술 후 합병증은 11예(12.9%)에서 발생하였는데 안면신경마비가 8예(9.4%)로 가장 많았고 2예에서 Frey syndrome이 있었으며, 창상감염이 1예에서 있었다. 수술후 보조치료로서 외부방사선 조사치료만 시행된 경우가 56예, 항암화학요법만 시행된 경우가 1예, 외부방사선 조사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한 경우가 3예 이었다. 수술후 추적관찰기간 중 원격전이가 8예, 림프절을 포함한 국소재발이 15예, 사망이 3예에서 발생하였다.

결 론 : 이하선암은 다수에서 진행암으로 발현되고, 수술후에도 재발 및 원격전이의 빈도가 높으므로 근치적 수술은 물론 조직학적 분류에 따른 악성도, 병의 진행정도를 고려하여 수술후 보조치료로서 외부방사선 조사치료 내지 항암화학요법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하며, 장기간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